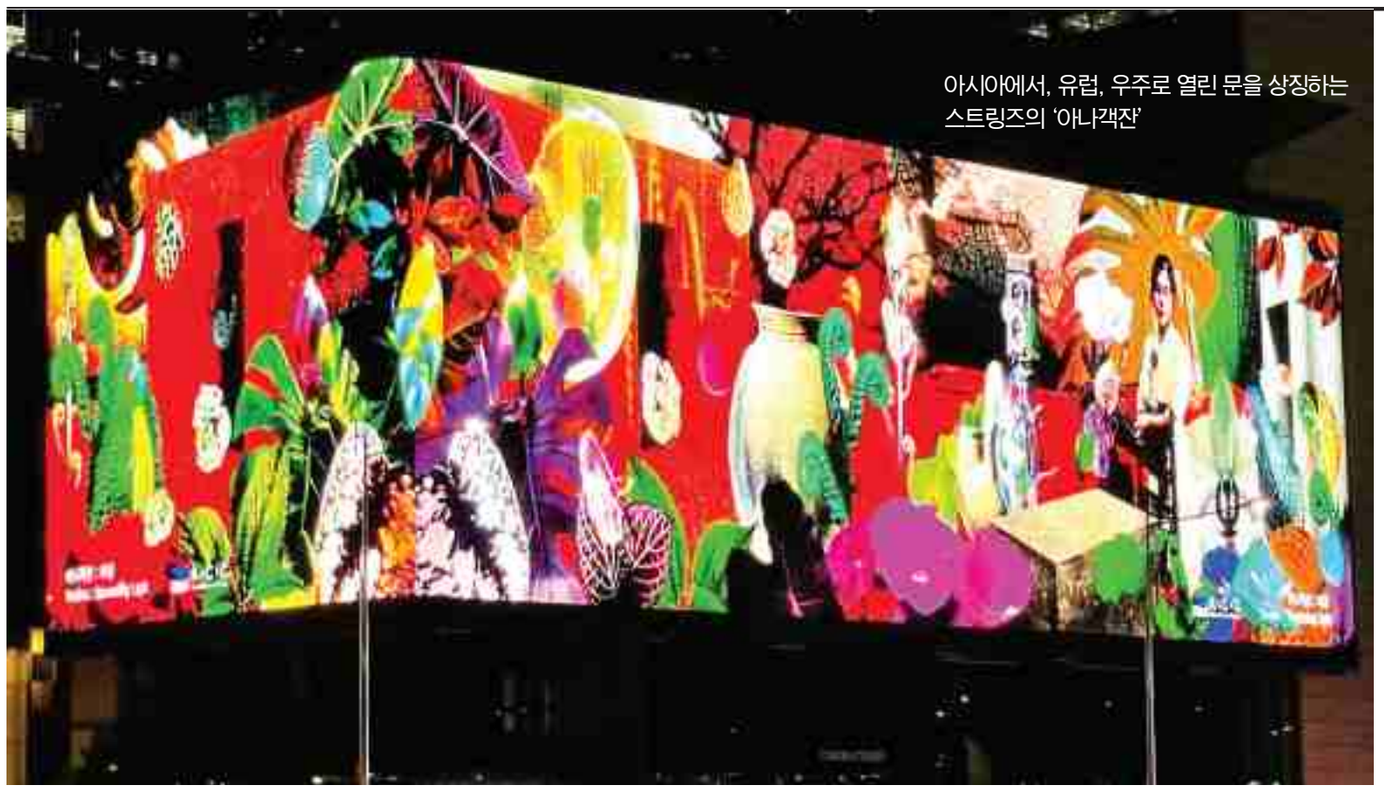
아시아에서, 유럽, 우주로 열린 문을 상징하는 스트링즈의 '아나객잔'

빛의 숲에서 미디어 아트를 만나다

ACC, 내년 5월 15일까지
'미디어월 특별전시 4×4ALLS'
미얀마, 5·18, 4·3 등 모티브
팀 히치콕 A 등 8팀 작가 참여
서울 K-POP 스퀘어 동시 상영

지난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 중 19세 소녀가 군경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소녀는 미얀마 태권도 챔피언이었다. 매운 음식과 붉은 립스틱을 사랑했던 소녀의 이름은 치알 신. 소녀는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소녀는 쿠데타 발생 이래 가장 많은 38명의 희생자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 미디어월에서 지난 15일부터 볼 수 있는 미얀마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작품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팀 히치콕 A) 내용이다. 여기에는 미얀마 외에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주먹밥과 분수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 제주 4·3 사건을 상징하는 붉은 동백 등 민주화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다양한 장면이 등장한다.

ACC는 내년 5월 15일까지(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 미디어월을 통해 '미디어월 콘텐츠 4×4WALLS'에 뽑힌 8개 작품을 선보인다. 아시아문화광장과 빛의 숲을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어 가을밤 정취도 느낄 수 있다.

특히 서울 코엑스 아티움 K-POP 스퀘어 미디어(11월 12일까지, 오후 6시30분·7시30분·8시30분·9시30분 시간당 1회)를 통해서도 두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4×4WALLS'는 '탐색하고 확장하고 개척한다. 그리고 코엑스로 간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순회 전시다. 이 기간 ACC 미디어월에서는 김대천, 언해피서킷, 이수진, 전보경, 팀 히치콕 A, 홍석진 등 여덟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을 찾아간다.

먼저 김대천 작품 '공생도시'는 메콩강과 공생해 온 도시를 그린다. 메콩강 인근 나라의 수도를 항공사진 등으로 생성한 패턴을 조합한 뒤 이를 3차원으로 변환한다. 여기에 생동하는 시공간의 춤을 가상으로 구현한다. 아시아 지도에 드리워진 근대를 관통하는 인류의 흔적과 자연, 도시기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다.

과학과 예술 융합을 토대로 작품 활동을 해온 언해피서킷은 '6개의 지구 언어로 쓰여진 인터스텔라 메시지'를 통해 지구와 인류의 구조화된 이미지를 선보인다. 전자파를 활용하는 외계 문명을 전제로 그들에게 지구에도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전보경은 기계가 학습하는 규칙에서 모티브를 얻은 '머신 러닝'을 선보인다. 기계의 동작 방법을 인간의 관절에 대입해 움직임 방식을 고찰한다. 기계의 움직임을 인간의 몸에 입히는 과정은 과연 기계일까? 아니면 인간일까? 작품은 이질적인 변증법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트링즈 1826(김소영·이애림)와 슬릿스코프(김제민·김근형) 두 팀은 '아나객잔', '루덴스토피아'라는 작품을 매개로 코엑스 아티움 K-POP 스퀘어 미디어를 각자의 공간으로 해석한다.

헤이룽강 아무르 강변에 있는 아나객잔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에 있다. 작품 속 '아나객잔'은 깊은 숲속 강가에 있지만 수수로 변전되는 숙소, 건축물을 말한다. 이곳의 문들은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마법적 문이며 나아가 아시아에서 유럽, 우주로 열리는 매개체다.

미디어 아티스트와 AI 아티스트로 구성된 슬릿스코프가 펼쳐내는 '루덴스토피아'(유희적 세계)는 인공지능이 상상하는 루덴스토피아를 상정한다. 작가들은 개인과 사회, 현실과 상상, 생존과 유희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을 루덴스토피아라고 한다. 작품은 공간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게 던지는 공간적 성찰이자 포괄적 질문이기도 하다. 관람은 무료.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리 오브제 너머 아름다운 우주

26일까지 신세계미술제 대상 최종운 초대전

갤러리 입구 가림막을 열고 들어서면 어두운 실내 공간에서 잔잔한 음악이 들려온다. 사방 벽면에 쏟아지는 빛의 형상들은 음악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유리로 만들어진 오브제를 통과한 다양한 빛의 형상은 수없이 모양과 색을 바꾸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제21회 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작가 최종운 초대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최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들에 과학·기술을 결합, 관람객들과 상호작용하는 작품들을 줄곧 선보여 왔다.

'Beyond the Space 2021'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유리 오브제로 다양한 빛깔과 형상의 우주를 표현한 체험형 전시다. 최 작가는 일상에서 수집된 유리로 만들어진 오브제들에 빛을 투과해 각각의 오브제들이 갖고 있는 형형색색의 빛깔과 무늬를 만들어냈다. 작품에 나타나는 불빛 하나 하나는 하늘의 은하수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재즈피아니스트 임인건이 작곡한 음악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이 전시장을 가득 채워 마치 새로운 미지의 공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어둠 속에서 빛의 움직임과 함께 흘러가는 음악은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최종운 작 'Beyond the Space 2021'(부분)

최 작가는 지속적인 사회 발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고요한 긴장' 관계에 줄곧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신작은 팬데믹의 시간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가 주변환경을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할 지 질문을 던진다.

나주 출신인 최 작가는 중앙대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슬레이드 예술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김세중미술관, 스페이스 캔 북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제30회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했다.

한편 1996년부터 열리고 있는 신세계미술제는 지난해부터는 수상작가들이 개인전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시상금 이외에 창작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왔고, 최 작가가 그 첫 주자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메타_가든' 전 작가 대화

21일 광주시립미술관
박상화·소수빈·윤제호 초청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현대미술에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가상'의 예술정원을 구현한 '메타_가든'전 연계행사를 진행한다.

박상화·소수빈·윤제호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대화'가 21일 오후 3시 미술관 북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음악 등을 미술에 접목한 융복합 현대미술의 방향과 미디어 아트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광주 영상미술분야 1세대인 박상화는 일상의 공간, 사람, 사물 등을 소재로 자연에 대한 상상들을 영상으로 표현해온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변화와 쉼, 사유의 공간을 펼쳐낸 '공중 비디오 정원'을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립 파리8대학에서 현대예술과 뉴미디어를 전공한 소수빈은 자연의 순환구조와 식물이미지의 재조합을 기초로 한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 실험 작품 '신-생태계의 휴리스틱'을 전시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테크놀로지학과 컴퓨터 작곡을 전공한 윤제호는 공연, 음악, 시각 분야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이 작품 안을 거닐며 빛과 소리를 느낄 수 있는 '휴식동굴'을 선보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웹툰 공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웹툰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웹툰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을 한다.

참가 대상은 전남 거주자나 전남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미만의 콘텐츠 기업과 전남 소재 대학교 졸업생 및 재·휴학생이다.

이번 공모는 전남의 문화, 관광, 예향 주제를 비롯해 자유주제로 참여 가능하며 전 연령이 감상 가능한 작품이면 장르에 제한은 없다. 심사는 신청 작품에 대한 창의성, 발전가능성, 대중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대상 1팀에 250만원, 최우수상 1팀에 150만원 등 총 6팀에게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無 착색료 ★ 감미료 ★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